



(auri)



No. 02  
2015.12.31

한옥 건축 사례집 Hanok Examples

# 부여한옥생활체험관(백제관)

신치후 부연구위원 김가람 연구원

**백제관**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가옥과 주변의 고풍스러운 자연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조선후기 사대부 가옥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설계: 길건축사사무소



# 부여 (백제관) 한옥생활체험관

백제관은 조선시대 네 분의 왕비를 배출했던 여흥 민씨 집안의 집으로 1829년 창건되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192호로 지정된 조선 후기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지정명: 민칠식 가옥)이다.



본채 전경 ▲



나지막한 뒷산을 배경으로 넓직한 터에 남향으로 자리 잡은 조선 후기의 주택이다. 사랑채 기와에 '숭정 87년'(1705)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건립 연대와는 관련이 없는 듯하며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19세기 후반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 부여한옥생활체험관\_백제관

백제관은 조선시대 네 분의 왕비를 배출했던 여흥 민씨 집안의 집으로 1829년 창건되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192호로 지정된 조선 후기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지정명: 민칠식 가옥)이다.

약 2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가옥은 부여군에서 토지와 가옥을 매입하여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전통적인 주거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수 및 수리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나지막한 뒷산을 배경으로 넓직한 터에 남향으로 자리잡은 조선 후기의 주택이다. 사랑채 기와에 '숭정 87년'(1705)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건립연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19세기 후반에 지었거나 수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몸채는 □자 평면구조로, 'ㅡ'자 모양의 대문채 옆으로 아랫사랑을 배치하고 대문채의 뒤쪽, 아랫사랑의 대각선상에 안방이 배치되었다. 몸채


HANOK

의 앞쪽에는 최근에 복원한 행랑채가 자리잡고 있어 건축당시의 집의 배치와 규모를 알 수 있다.

안채는 왼쪽부터 부엌, 큰방, 대청, 작은방, 안마루 순으로 구성된 8칸집으로, 오른쪽에 돌출하여 덧붙여진 안마루는 주변에서 보기 드문 경우로 특이하다. 또한, 안마당은 아담하지만, 뒤쪽 언덕의 예스러운 나무들과 대나무숲이 넘어보여 고풍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사랑채는 광과 중문간, 부엌, 아랫사랑, 마루로 배치하였는데, 안채와 비슷한 구조기법을 보이고 있지만 안채보다 높게 지어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중문은 들어서면서 안채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1칸 꺾어 통하게 하는 등 조선후기의 사대부 가옥의 배치특성을 잘 보여준다.

가옥의 우측에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신축되어 전통주거와 전통음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백제관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가옥과 주변의 고풍스러운 자연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잘 어울리고 조선후기 사대부 가옥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글/설계: 길건축사사무소 이사 김병훈  
사진: (주)비알티에이

돌출된 안마루(외관) ▼



사랑채 ▲



안채 ▲



# 부여 (백제관) 한옥생활체험관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김대익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9 [www.hanokdb.kr](http://www.hanokdb.kr)

